



[라이프] 아이디어가 '대박' 만든다 직원에 귀 기울이는 유통업계 너



Life

[트렌드] 정수기 변신은 무죄 '컨버전스 가전' 열풍 L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으로 '상생의 선순환' 만든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제너럴바이오

지난 2007년 설립된 바이오 연구개발(R&D) 전문기업 제너럴바이오는 10년간 국내 대기업 소재개발팀에서 일하던 서정훈 대표가 전북 완주로 귀촌한 뒤 설립한 회사다. 화장품 제조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며 시작한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을 이뤄 설립 3년 만에 자사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설립 12년을 맞이하는 제너럴바이오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중증장애인 누나로 인해 장애인 복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서정훈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장애인·취약계층 고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취약계층 복지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몸소 실천하는 제너럴바이오의 창업 모토는 ▲지역 출하 원료 사용 ▲지역민 고용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다. 창업 모토를 한결같이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근로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2011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동시에 자사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제너럴바이오는 제2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취약계층 고용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생산직 전 직원이 장애인과 영세농민으로만 구성됐으며 매년 취약계층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전년도보다 32.3% 증가한 21명을 고용,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30%를 넘겨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제너럴바이오의 취약계층 채용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작년에는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얼마든지 경제·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서정훈 대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업무 적응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사내 복지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교통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와 사택,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제'를 시행해 근로자들의 친화력과 결속력 도모에 힘쓰고 있다. 공장 곳곳에는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추가로 고



2018년 소외계층 영양제(EBF) 후원.



따뜻한 겨울나기 생활용품 나눔 후원행사.



제너럴바이오 이웃돕기 성금 후원.

/제너럴바이오

장애인·소외계층 고용 적극 나서 업무 적응 위해 '1대1 멘토제' 등 장애인 근로자 경제적 자립 도와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활동 '지쿠퍼 재단' 개설, 일자리 연계 사랑의 열매에 1억원 기부도

용해 상담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너럴바이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배정윤 사원은 2018년 사내 우수 사원으로 선정됐다. 배정윤 씨는 "제너럴바이오에서 근무한 지 수 년째"라며 "장애인이라는 편견이나 차별 없이 말을 일을 해내고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해내는 것 같아 자부심도 생긴다"며 제너럴바이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근무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최주연 제너럴바이오 인사팀 매니저는 "제너럴바이오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료 매입, 기부금 전달로 지역경제 기여 전북 완주와 남원에 위치한 제너럴바이오는 전북지역 1호 사회적 기업인 만큼 직접 제품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基業)으로 전북 지역 업체들과 거래해왔다. 지리적 여건상 원·부자재 수급에 유리해 자재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인삼과 같은 원료를 시작으로, 현재는 도내 13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간 30억 원 가량의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기반을 둔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해온 제너럴바이오는 2015년에는 도내 20여개 사회복지기관과의 후원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물품과 후원금을 정기 기부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제너럴바이오와 지쿠퍼의 후원금품을 수혜받은 인원은 총 6만명. 지금까지 약 7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제 2의 제너럴바이오 육성이 목표

제너럴바이오는 지난 10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 '지쿠퍼 재단'을 개설했다. 지쿠퍼 재단은 먼저 낙후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

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을 준비해 꾸준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쿠퍼 재단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 구성원에게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일자리 연계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비영리 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200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작년 12월 서정훈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에 2000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정훈 대표는 이전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경제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연한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이 시대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때 더욱 명예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상생의 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